

○선발 대학원의 운영 현황과 과제○

# 서강대 국제학대학원의 교육 현황과 당면 과제

조 용 효

서강대 국제학대학원장



## 1. 서강 국제학대학원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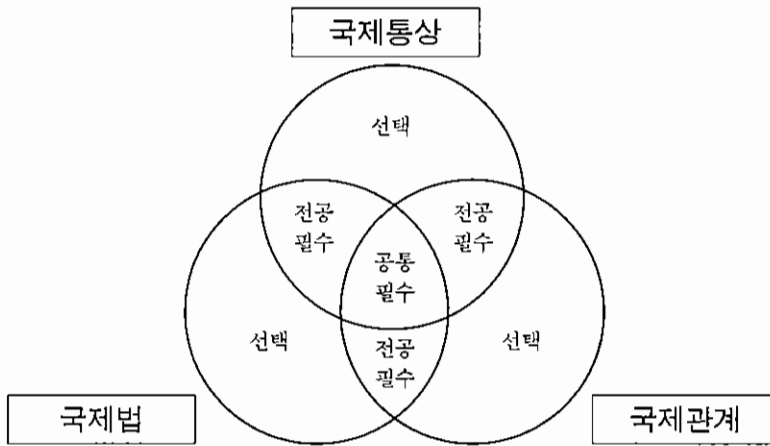
서강대는 가톨릭적 세계관을 토대로 세워진 대학으로서 설립 이념 자체가 국제성과 세계성에 입각하고 있다. 서강 국제학대학원은 서강 교육이념의 국제성을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현한 실체라고 할 수 있다.

서강대는 1997년 초부터 서강 르네상스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즉, 더 열리고 더 우수하고 보다 미래지향적인 다시 말해서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대학으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교육개혁운동을 펴고 있다.

국제학대학원은 이 운동의 일환으로서 앞서가는 국제화 교육 프로그램의 하나이기도 하다. 서강대는 국제전문인력 양성 교육의 촉진 필요성을 감안하여 독립적이면서도 거 교적인 국제전문인력 양성 운영재단을 설립하여 별도의 이사회를 두고 있다. 서강대 총장이 이사장직을 맡고 국제학대학원 원장을 포함한 학·처장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간다.

### 1) 교육목적

서강 국제학대학원이 추구하는 교육목적은 새로운 세계의 경제·정치 및 사회 질서가 요청하는 전문가를 양성 배출하는 데 있



〈그림〉 서강대 국제학대학원 교육과정

다. 새로운 세계질서는 치열한 경쟁의 질서인 동시에 면밀한 협력에 기초를 둔 질서이기도 하다. 이러한 전 지구적 경쟁과 협력의 도전은 그에 걸맞은 자질과 능력과 기술을 갖춘 국제전문가를 필요로 한다. 서강 국제학대학원이 추구하는 교육의 목적은 바로 그러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으며, 다음과 같은 국제전문가를 배양하고자 한다.

- ① 기능 분야의 전문성(Substantive Expertise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Trade or International Law)
- ② 풍부한 지성(Intellectual Sophistication)
- ③ 다문화 속에서의 자신감(Cultural Competence Including Language, Especially English)

## 2) 교육과정

서강 국제학대학원 교육과정은 현재 학제적 전문석사과정(Interdisciplinary Professional Master's Degree Program)이다. 학위는 국제학석사(Master of International Studies) 학위를 수여하며, 국제관계, 국제

통상, 국제법 등의 전공이 개설되어 있다(〈그림〉 참조). 이 세 전공은 공통필수를 바탕으로 하며 또 전공필수와 선택에서도 한 전공분야가 타전공분야와 부분적으로 겹칠 수 있도록 학제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지역학도 교육과정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세계를 동아시아, 북미, 유럽 및 중남미 등 네 지역으로 나누어 그 중 한 지역을 선택하여 전공과 병행할 수 있다. 따라서 기능적 전공(Substantive Concentration)과 지역전공(Area Studies Specialization)을 씨줄 날줄로 엮은 Matrix System형 교육과정으로 되어 있다.

강의, 세미나, 특강 등의 과정을 통해서 시행하는 교육 외에도 해외연수와 실무경험을 위한 인턴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해외연수는 언어와 문화 교육 또는 필요 학과목 이수를 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가급적 입학후 빠른 시일 내에 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인턴은 현장 실무경험을 통한 실천교육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한

전문실력이 축적된 상태에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턴은 취직으로 연결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인턴과 졸업 후의 취직 희망처 및 이의 가능성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전문실력이 축적되기도 전에 인턴을 하게 되면 학생과 학교 이미지에 손상을 줄 수 있다. 특히 국제기구를 인턴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현재 9개 국제대학원들이 모두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학점 교환협정을 맺은 국내·외의 대학원과는 최고 12학점까지 학점 교환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교육경험의 길을 열어 놓고 있다.

### 3) 교수진과 학생

서강 국제학대학원은 현재 학생 50명에 전임교수 5명, 겸임교수 3명, 산학협동 겸임교수 6명, 연구교수 3명, 초빙교수 2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래의 계획보다도 교수진의 확보가 학생수에 비하여 훨씬 높은 수준이다. 앞으로 학생수와 교수진도 점차 늘릴 계획이며, 2000년에는 학생 정원 160명에 전임교수만도 14명으로 증원될 것이다. 교수진은 미국과 유럽의 명문대 출신들이며 또 현지 대학에서 교수경력이 많거나 주요 국제기구, 외국기관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분들이 대부분이다.

학생들의 질적인 우수성 또한 교수진의 우수성과 평행선을 긋는다. 미국의 전문대학원에서 약 20년간 입학사정을 담당했던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우리 학생들은 소위 미국 명문대 대학원생들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학생의 높은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학생모집의 경험을 축적하기 위하여 1997년도에는 50명 정원을 봄, 가을 학기 두 번에 나누어서

모집하였다.

### 4) 지원 시설

서강 국제학대학원은 원생들의 학습과 연구 활동을 위한 전용 연구실을 확보하고 있다. 이 연구실에는 논문 준비생들을 위해서 개인전용 연구실(carrels)도 마련되어 있다. 국제학대학원 전용으로 선진시설을 완비한 멀티미디어 센터를 설치하였고, 국제화상회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정보화시대의 교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한다.

신간서적과 정기간행물을 비치한 국제학대학원 전용 자료실을 마련하여 교수와 학생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설과 교육장치를 통해서 서강 국제학대학원은 벽이 없는 대학원, 국경에 구애를 받지 않는 대학원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 2. 국제학대학원의 당면 과제

본원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자금지원 혜택을 받는 9개교의 대학원들은 다른 인문·사회 분야 대학원에 비해서 출발부터 순조롭게 일어서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특히 정부의 자금 지원이 끝나고 나면 재정적인 자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국제학대학원을 졸업하는 학생들이 국제전문인력의 수요를 알맞게 충족시켜 줄 것인가 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즉, 국제학대학원 졸업생들이 취직도 잘 되고,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국제활동에 필요하고 적합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의문이다. 그리고 세계화의 현실에 알맞은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원 교육은 과연 어

떠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여기서 지적한 세 가지 외에도 중요한 문제가 많을 줄로 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 세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 1) 5년 후의 재정 자립

교육부의 1,000억 원 재정 지원은 연 200억 원씩 지원하여 5년 후에는 지원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는 한국의 현실에서 파격적인 지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국제학대학원 교육이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지 않으며, 또 학생들에게 학자금 지원을 함으로써 서구의 명문대학처럼 좋은 프로그램, 좋은 교수, 좋은 학생, 좋은 시설을 갖추고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의 재정 지원이 끝나면 어디서 어떻게 그 재정 지원을 충당할 것인가? 첫째, 학생들의 등록금으로는 충당할 수 없다. 오히려 학생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계속되어야 우수한 학생들을 계속 유치하게 될 것이다. 둘째, 국민조세 부담에서 나오는 정부자금을 제외한 교육자금 출처는 기업, 재단, 개인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은 각 대학별로 기업, 재단 또는 재력이 있는 동문이나 독지가의 후원을 받는 방법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재정 후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학대학원이 시행하고 있는 교육이 기업의 인력자원 요청이나 재단 또는 독지가의 교육사업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의 리더십이 후원대상자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 2) 국제전문인력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

국제학대학원들의 현 교육과정이나 교육 방침은 필자가 아는 바로는 기업이나 국제기구를 포함하여 교육 실수요자의 의견수렴 없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즉, 특정 내용의 국제전문교육을 특정 방식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게 되면 졸업생들이 수요자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또 실제로 수요가 있으리라는 판단에 의해서 현재와 같은 국제전문인력 양성 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판단은 실증자료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므로 시행착오를 범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국제관계 기업, 공공기관, 국제기구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시장조사를 치밀하게 하여 국제전문인력 수요자들의 요구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수요자 요구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현행 교육과정이나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계속 추진하겠지만, 교육현황과 필요한 인력의 실정에 차이가 있을 경우는 교육과정을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런 관점에서 국제전문인력 수요에 부응하는 운영체제를 적극 권하고 싶다.

### 3) 국제학대학원의 국제경쟁력

국제학대학원이 현상 유지되는 것만으로 성공이라고 보는 것은 안이한 생각이다. 설사 정부의 재정 지원이 끝난 후에 계속 같은 수준의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국제화가 가져오는 인력 경쟁의 도전에 꼭 부응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인력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한국의 국제학대학원 졸업생들이 국제관계 전문가로서 뛰어난 업무 추진력과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리하여 세

계적으로 이름난 국제관계대학원의 졸업생들과 대등하거나 비교우위를 차지해야 세계화에 따른 정부 차원의 교육 대응책으로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3. 맺는 말 : 교육의 세계화

한국의 국제전문인력 양성 교육에 몸담고 있는 필자는 어떤 의미에서 한국의 교육 국제화의 전방에 서있는 느낌을 강하게 갖는다. 늘 머리를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다. 그것은 한국의 교육제도나 관행을 충실하게 따르면서 과연 교육의 국제화를 해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의 앞서가는 대학이나 국제학대학원이 세계의 명문대학 또는 미국의 저명한 국제대학원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하는 점을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한국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상세하고 체계적인 분석과 서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주저되지만, 우리 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를 두 가지만 지적해 보기로 한다.

첫째는 교육의 비용 문제다. 미국의 소위 일류대학에서 교육에 드는 비용은 엄청나다. 예를 들어, 석좌교수 직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약 300만 불의 기금이 필요하다. 이 기금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석좌교수의 봉급과 그 교수의 학술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석좌교수 하나만 두고 보더라도 서강대는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자금 3년치를 다 합쳐야 한 사람의 석좌교수를 위한 기금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한국의 실정에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지만, 최고 수준의 교수를 확보하기 위

해서는 대단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둘째, 교수의 채용과 처우를 결정하는 데는 시장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경력과 능력을 갖춘 교수, 생산성이 높은 교수에 대해서는 그에 적절한 처우를 해줄 수 있어야 한다. 예외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경력, 능력, 생산성에 관계없이 직위에 따라서 거의 비슷한 대우를 해주는 제도 아래에서 뛰어난 교수를 초빙하기 어려울 것이고, 따라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는 교육도 어려울 것이다. 유능하면서도 필요한 교수를 끌기 위해서는 몇 년씩 설득작업을 하고 또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이 이름난 대학들의 교수 유치정책이다. 그와 병행해서 교수 유치에 국적과 연령의 장벽도 없어야 한다고 본다.

위에서 지적한 저명교수 확보를 위한 투자 및 교수 개개인의 경력, 능력, 생산성에 상응하는 개별 처우가 관행이나 현행 법규 정 때문에 불가능하다면 국제경쟁에 앞서는 대학교육, 국제전문인력 양성 교육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

---

조용호/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라큐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네바다 대학, 아크론 대학,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 교수를 지내고, 현재는 서강대 국제학대학원 원장으로 재직중이다. 주요 저서로 *The White House and the Blue House : Government Reform in the U.S. and Korea* 등이 있고, "The Cultural Roots of Entrepreneurial Bureaucrasy"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